

첫 직장 입직 소요기간, 고용형태, 근속기간 현황 및 변화

- 본고는 첫 직장 입직에 관한 통계를 살펴봄으로써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평균 첫 직장 입직 소요기간, 고용형태, 근속기간의 수준과 변화에 대해 살펴봄.
 - 첫 직장 입직의 성별, 학력별 현황과 변화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하고자 함.
- 2024년 평균 첫 직장 입직¹⁾ 소요기간²⁾은 전년대비 늘어났으며, 성별·학력별로 입직 소요기간 변화가 다르게 나타남.
 - 평균 입직 소요기간(이행기간)은 2024년 11.5개월 수준으로 2023년에 비해 약 1개월 늘었음.
 -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들의 평균 입직 소요기간은 17.7개월로 전년대비 약 3개월 늘었음.
 - 평균 입직 소요기간이 초대졸은 8.0개월, 대졸은 8.4개월로 고졸 청년에 비해 짧았으며, 그 변화폭도 작았음.
 - 성별로는 남성(13.6개월)이 여성(9.5개월)에 비해 첫 직장 입직에 평균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전년대비 평균 입직 소요기간 증가폭도 남성(1.5개월)이 여성(0.7개월)에 비해 컸음.
 - 남성 고졸 이하 청년의 첫 직장 입직 소요기간이 19.4개월로 가장 길었고, 여성 초대졸 청년은 7.6개월로 가장 짧았음.

1) 첫 직장 입직의 정의는 소득 활동이 발생한 모든 취업의 형태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단기 일자리 경험도 포함함.
2) 평균 입직 소요기간은 최종학교 졸업 후 직장 경험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음(KOSIS 기준과 동일).

〈표 1〉 학력별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첫 직장 입직까지의 평균 소요기간

(단위: 개월)

	전 체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2015	10.0	16.0	7.6	6.4
2016	10.0	15.0	8.1	6.8
2017	10.3	14.9	8.2	7.6
2018	10.5	15.8	7.7	7.5
2019	10.8	15.6	8.2	8.0
2020	9.8	14.5	7.2	7.3
2021	10.0	13.8	8.1	7.4
2022	10.7	15.8	8.2	7.6
2023	10.4	14.6	8.8	7.8
2024	11.5	17.7	8.0	8.4

주: 소요기간은 첫 직장 입사 연월을 개월 수로 환산한 값 - 최종학교 졸업/중퇴 연월을 개월 수로 환산한 값으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연도.

〈표 2〉 성별·학력별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첫 직장 입직까지의 평균 소요기간

(단위: 개월)

	남 성				여 성			
	전 체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전 체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2015	12.7	18.1	9.6	7.7	7.9	13.3	6.3	5.7
2016	12.0	16.9	10.2	6.4	8.4	12.5	6.8	7.1
2017	12.6	16.9	10.2	8.2	8.4	12.0	7.0	7.2
2018	11.8	17.0	8.5	6.4	9.5	14.1	7.2	8.1
2019	11.9	16.4	9.2	7.2	9.7	14.3	7.5	8.4
2020	11.7	16.2	8.3	7.2	8.2	11.7	6.5	7.3
2021	12.0	16.1	9.5	7.8	8.1	10.6	6.9	7.1
2022	12.6	17.7	8.9	7.6	9.0	12.9	7.6	7.6
2023	12.1	16.2	10.0	8.3	8.8	12.1	8.0	7.5
2024	13.6	19.4	8.5	9.0	9.5	14.6	7.6	8.1

주: 소요기간은 첫 직장 입사 연월을 개월 수로 환산한 값 - 최종학교 졸업/중퇴 연월을 개월 수로 환산한 값으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연도.

○ 청년 첫 직장의 고용형태는 전일제 일자리가 다수였으나, 과거에 비해서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첫 직장의 고용형태가 전일제인 청년의 비중은 전체 첫 직장 경험자(임금근로자) 중 76.0% 임.

- 첫 직장 고용형태 전일제 비중이 2015년 86.1%에서 서서히 낮아지면서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늘어남.
- 대졸 이상 청년의 전일제 비중은 81.3%, 고졸 이하 청년은 같은 비중이 66.5%로, 상대적으로 고학력 청년일수록 전일제 비중이 높았음.
- 첫 직장 고용형태에 관한 통계에 있어 성별 격차는 크지 않았음.

〈표 3〉 학력별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첫 직장 고용형태

(단위 : 천 명, %)

	첫 직장 경험자 중 임금근로자 인원	전일제 비중			
		전 체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2015	3,788	86.1	78.0	90.5	89.9
2016	3,909	85.5	78.5	89.6	89.0
2017	4,012	83.8	75.2	87.6	89.2
2018	4,054	82.8	73.2	87.3	88.8
2019	4,070	80.2	68.8	86.7	86.4
2020	3,963	79.0	68.6	83.5	85.6
2021	3,953	79.1	69.8	83.5	85.2
2022	4,018	78.8	70.5	81.6	84.8
2023	3,865	78.1	69.5	80.7	83.9
2024	3,671	76.0	66.5	79.8	81.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연도.

- 첫 직장에서 퇴직한 청년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과거에 비해 소폭 늘어나고 있음.
 - 청년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9.5개월로 2015년 평균 근속기간인 17.2개월에 비해 2.3개월 늘었음.
 - 여성 평균 근속기간은 20.4개월로 남성(18.5개월)에 비해 첫 직장에서 더 오래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 평균 근속기간은 2015년(14.8개월)에 비해 3.7개월가량 늘었고 여성 평균 근속기간은 같은 기간 1.3개월 늘었음.

〈표 4〉 성별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

(단위: 개월)

	전 체	남 성	여 성
2015	17.2	14.8	19.1
2016	17.8	15.7	19.4
2017	17.7	16.1	19.0
2018	18.0	16.8	19.0
2019	17.4	15.9	18.8
2020	17.7	16.5	18.8
2021	18.4	17.7	19.1
2022	19.0	17.5	20.5
2023	18.7	17.5	19.7
2024	19.5	18.5	20.4

주: 첫 직장이 현 직장일 경우, 첫 직장 입직일부터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연도.

○ 청년의 첫 직장 입직에 관한 통계를 살펴본 결과, 최근 청년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어려움이 다소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함.

- 평균 입직 소요기간이 과거에 비해 1개월가량 늘었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성별로는 남성이 첫 직장 입직에 더 긴 기간을 필요로 하였음.
- 평균 입직 소요기간은 최종학교 졸업과 첫 직장 입직 간의 시간차만을 산정한 것으로, 취업을 위한 휴학³⁾·졸업유예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적 취업 준비기간은 통계로 확인되는 것보다 더 길다고 볼 수 있음.
- 첫 직장을 시간제 일자리로 입직하는 청년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늘었으며, 상대적으로 저학력 청년일수록 첫 직장 고용형태가 시간제인 비중이 높았음.
- 다만, 첫 직장 근속기간은 큰 변화 없이 소폭 늘어나고 있어서 입직 후 빠르게 퇴사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았음. **KLI**

(김종욱,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3)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휴학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2024년 5월 현재 34만 7천 명으로 전체 대졸자 중 12.6%에 달함.